

OPEC+ 감산 완화 결정 배경 및 시사점

- 약 2년에 걸쳐 원유 감산 조치를 시행해왔던 OPEC+가 오는 2024년 12월부터 이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 OPEC+는 2022년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감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별도의 자발적 감산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는 OPEC+ 차원의 감산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감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OPEC+ 회원국의 총 감산 규모는 일일 586만 배럴에 달함.
 - 지난 9월 OPEC+는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JMMC: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회의에서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4년 12월부터 하루 18만 배럴 규모의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월 회의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 당초 OPEC+의 감산 완화 시기는 2024년 10월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나, 9월과 10월 회의에서 이행 시기를 12월로 조정하였음.
 - 다만 성명을 통해 향후 원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완화 시기 조정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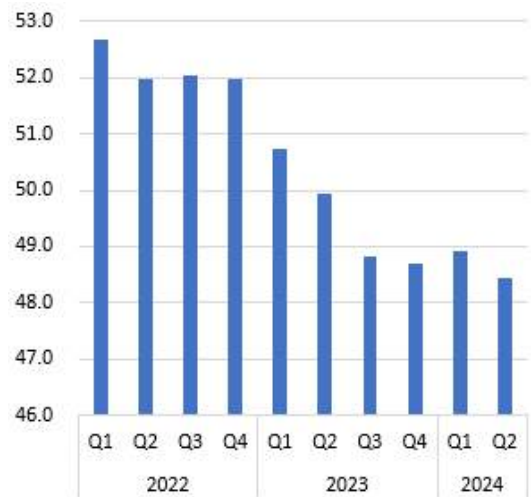
- 장기간의 원유 감산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시장 내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근 감산 완화 필요성이 부각됨.
 - 지난 2년간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의 영향으로 수차례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배럴당 70~90 달러 수준을 횡보하였으며 최근에는 60달러대까지 떨어짐(그림1 참고).
 - 감산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OPEC+ 회원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22년 50.9% 수준이었던 OPEC+ 원유 생산 비중은 2023년 49.6%로 1.3%p 낮아졌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48.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감(그림2 참고).
 - 이 밖에도 중국 등 주요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로 감산 효과 발현에 불리한 원유 수급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과 일부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 회원국 간의 상호 불신이 커졌다는 점도 감산 완화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의무 할당량 초과에 대응하여 JMMC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산 이행률을 두고 회원국 간 불신이 심화됨.
- 감산 완화 조치에 따른 원유 공급량 증가로 국제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완화 속도 결정에는 OPEC+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금번 감산 완화 조치는 OPEC+ 회원국이 감산을 통한 국제유가 부양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국 재정 충당을 위한 전략을 유가 부양에서 증산을 통한 점유율 확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4분기부터 한동안 원유 시장 내 초과공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번 감산 완화 조치도 이에 기여하며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5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원유 시장 내 하루 30-150만 배럴 규모의 초과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¹⁾
 - 단, 최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등 시장 내 공급 감소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OPEC+가 향후 감산 속도 결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그림 2. 전 세계 원유 생산 내 OPEC+ 비중
(단위: %)



주: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WTI유 가격임.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광호

1) IEA, Oil Market Report.